

##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정순 · 한경희\*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교수  
수원여자대학 패션코디네이션과 교수\*

## The Effects of University Woman Students' socio-cultural attitudes to appearance on their body image and satisfaction of their physical bodies

Lee, Jung-Soon · Han, Gyung-He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Suwon Women's College\*

### Abstract

The author of this study would like to consider the influence that socio-cultural attitudes to the appeara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have on body image and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factors of socio-cultural attitudes on outward appearance of women college students, three factors which are named "Internalization", "Awareness" and "Non-confirmity" have been drawn out: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the behavioral figure images of women college students, three factors which are named "Figure Management", "Weight Management" and "Figure Valuation" have been drawn out:

3. Socio-cultural attitudes to appearance have correlation with body image, BMI and self-satisfaction of body and appearance:

4. According to consideration of the result of the study of the Influence that socio-cultural attitudes to the appearance have on physical satisfaction of each physical part, it is showed that they have managed their physical weight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degree of weight and other circumference items:

5. Socio-cultural attitudes to appearance have high correlation with appearance management and weight management.

**Key Words** : socio-cultural attitudes(사회문화적태도), body image(신체이미지), satisfaction(만족도)

## 1. 연구목적

외모는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 중의 하나이다. 외모는 대인지각의 후광효과로 작용하여 개인의 능력과 같은 다른 특질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으로 연결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sup>1)</sup>. 따라서 시대가 흐를수록 외모가 갖는 시각적 효과는 인간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감정이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 계층, 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대에는 대중매체,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일반에게 직접적으로 끊임없이 제시해 왔다. 특히 TV는 대중매체 중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TV를 통해 등장한 얼굴과 몸매가 뛰어난 연예인들은 실력과는 별개로 막대한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어 이들은 몸이 하나의 사회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외모로 인간의 우월성을 가리고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으로 홍금희<sup>2)</sup>의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마른 몸매의 신체이미지라고 하였다. 이러한 몸 신드롬은 사회구조적으로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에서 기인하며 현대인들은 사회적 이상미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육체자본인 몸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외모의 사회문화적 압력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투자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상적인 모델에 도달하도록 과도한 외모행동을 하게 한다. 매력적인 외모가꾸기는 자기관리능력의 척도가 되어 몸매가 뚱뚱하거나 화장을 하지 않거나 옷을 갖춰입지 않는 경우 자기관리를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남성은 가부장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여성에게 특정한 태도와 역할을 요구하여 여성은 자연스럽게 남성보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여성들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된 아름다움의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sup>3)</sup>.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비만·체형관리실 등의 미용 산업과 성형외과 등 몸과 관련된 산업들이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모관리 및 신체이미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 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체이미지의 감정적·행동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제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재의 실정에 맞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는 현실적이고 건강한 자아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자는 소비자 집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장세분화, 신제품 개발, 광고매체 이용 등 마케팅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Heinberg et al.(1995)은 여성들의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수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SATAQ(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을 개발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sup>4)</sup>.

SATAQ으로 청소년기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한 조선명, 고애란<sup>5)</sup>의 연구를 보면, 청소년기 여학생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적 비교를 하고,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미디어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신체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와 자신에 신체의 중요성을 부가하고 열중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실제적 모습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

김광경외<sup>6)</sup>는 신체 이미지란 우리의 신체적 자아,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말하며,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자아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김완석, 김해진<sup>7)</sup>은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경험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신체에 관한 정신적 표상으로서, 자신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체이미지는 신체의 기능 차원인 체기능 차원(근력, 내장기관들의 적절한 작용을 토대로 하는 건강 등에 대한 지각)과 신체의 외모 차원인 체형 차원(신체의 외적특성, 크기, 형태 등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조선명, 고애란<sup>8)</sup>은 신체이미지는 신체크기, 체중, 그리고 얼굴을 포함하는 신체 각 부분들의 생김새와 의복과 화장 같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지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송경자, 김재숙<sup>9)</sup>은 신체이미지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왜곡되기 쉬우며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자상의 신체를 왜곡하여 지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이미지가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실제 자신의 신체크기보다는 지각된 크기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마른 체형으로 지각할수록 자아개념과 의복과시성이 높고, 자신의 신체지각에서 왜곡이 적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숙, 김윤희<sup>10)</sup>는 많은 학자들이 신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신체만족도를 사용하였는데, 신체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하여 만족 불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서화숙, 송정화<sup>11)</sup>는 신체만족도는 신체의 여러 부분과 신체의 기능에 대한 만족감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키는 클수록 신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추태귀<sup>12)</sup>는 신체만족도는 객관적인 신체 치수 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기준에 근거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타인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개

인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 경우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고 의복에서도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형을 선호할 것이며,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 경우, 여러 가지 외모관리 행동을 통하여 이상형에 근접하려고, 의복을 통하여 체형을 가리거나 보완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

조윤주, 이정란<sup>13)</sup>은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장,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모두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홍금희<sup>14)</sup>의 연구에서는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개인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신체 및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및 만족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및 만족도의 변인들간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BMI, 신체이미지, 신체 및 외모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알아본다.

### 2. 측정도구

####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홍금희<sup>15)</sup>의 연구에서는 Heinberg et al.(1995)의 SATAQ 14문항 중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문

항이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외시킨 후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TAQ 14문항 중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와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문항이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외시킨 후 1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 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김광경<sup>16)</sup>, 추귀태<sup>17)</sup>, 황진숙, 김윤희<sup>18)</sup> 등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검정된 1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명, 고애란<sup>19)</sup>은 신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평가를 신체 이미지의 감정적 차원(affective aspect)이라고 하였고, 신체에 대한 의식과 관심, 중요성에 관한 평가를 인지적/행동적 차원(cognitive/behavioral aspect)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의 3요인 중 외모관리, 행동관리를 신체이미지의 행동적 차원으로, 외모평가를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신체만족도 및 실제사이즈

신체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는 서화숙, 송정화<sup>20)</sup>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 4)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응답자의 실제 키(cm)와 몸무게(kg)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BMI지수(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키<sup>2</sup>(cm) $\times 10^4$ 로 계산하였다. 홍금희<sup>21)</sup>, 조윤주, 이정란<sup>22)</sup> 등의 선행연구에 따라 BMI<20이면 수척, 20≤BMI<25이면 정상, 25≤BMI이면 비만으로 판정하였다.

#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 1)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임의표본추출법으로 추출된 17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총 170부를 배부하여 153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응답지 3개를 제외한 150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기간은 1,2차 예비조사를 거쳐서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류관련 전공의 훈련받은 면접자가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여대생들의 거주지역은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이며, 의상관련 전공자들로 추출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ersonal Comput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먼저 원천 데이터의 내용들이 도수분포상에서 어떠한 분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고, 외모의 사회문화적 집단별 태도에 따른 관련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신체이미지 및 만족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문화적태도가 신체이미지 및 만족도, BMI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관련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표 1>, '우리 문화에서 출세하기 원한다면 외모의 매력이 매우 중요하다'가 가장 높은 평균값(3.98)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서 성공하려면 몸매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3.93)', '나는 내 몸매가 수영복 모델과 같은 몸매였으면 한다(3.8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모델처

럼 되고 싶지 않다(2.57)', '오늘날의 사회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1.96)',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를수록 보기 좋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2.70)'는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여대생들이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내면화, 인식)하고 동조함을 알 수 있다.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Heinberg et al.<sup>23)</sup>, 홍금희<sup>24)</sup>, 조선명, 고애란<sup>25)</sup> 등의 연구에서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각각 '내면화'와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 기준(E)를 '1'로 하고, 베리맥스(V)로 요인회전한 결과 총분산을 61.55% 설명하는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I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29.12%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승인하며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내면화(internalization)'라 명명하였다. 요인 II는 17.40%의 설명력을 지니며 외모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항

들로 '인식(awareness)'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II은 15.03%의 설명력을 지니며 지배적인 사회인식에 의도적으로 반대하거나 독립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문항들로 '비동조(non-conformity)'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계수는 요인 I은 .81이고, 요인 II는 .67이고, 요인 III은 .50으로 나타났다.

## 2. 신체이미지

여대생의 신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총분산을 60.41% 설명하는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3개의 요인별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인 I의 '나는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다(평균 2.01, 표준편차 .97)'항목의 알파계수가 전체알파계수(.62)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 두 항목은 전체 상관관계에서도 상관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삭제한 후 다시 신뢰도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요인 I의 Cronbach 알파값이 0.83으로 매우 높아졌으며, "항목이 삭제될 경

<표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분석의 요인분석

요 인 및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
<b>요인 I: 내면화</b>					
마른 여자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렇게 말랐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3.64	1.21	.84	3.28	29.12
마른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3.72	1.17	.80		
TV프로나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 하는 전형을 보여 준다	3.26	1.10	.78		
나는 보그지와 같은 패션잡지를 보면서 내 외모와 잡지모델을 비교하곤 하다	3.17	1.09	.73		
나는 내 몸매가 수영복 모델과 같은 몸매였으면 한다	3.86	1.00	.62		
<b>요인 II: 인식</b>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서 성공하려면 몸매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3.93	1.00	.85	2.78	46.52
나는 옷은 마른 모델들이 입어야 더 예뻐 보인다고 믿는다	3.20	1.16	.84		
우리 문화에서 출세하기 원한다면 외모의 매력이 매우 중요하다	3.98	0.87	.80		
사람들은 마를수록 옷맵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3.52	1.10	.72		
<b>요인 III: 비동조</b>					
오늘날의 사회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1.96	0.83	.81	1.95	61.55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모델처럼 되고 싶지 않다	2.57	1.01	.76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를수록 보기 좋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2.70	0.92	.76		

우”의 알파계수를 살펴본 결과 0.83보다 큰 값이 없으므로 이들 항목들은 전체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항목을 제거한 후 다시 여대생의 신체이미지를 요인분석한 결과 총분산을 63.25% 설명하는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2>. 요인 I 은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분산의 27.58% 설명력을 나타냈고 ‘외모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II 는 18.42%의 설명력을 지니며 ‘나는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다’를 포함하여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체중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III 은 17.26%의 설명력을 지니며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를 포함하여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외모만족’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계수는 요인 I 은 .83이고, 요인 II 는 .84이고, 요인 III 은 .73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관련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표 2>,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평균 4.41)’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나

는 내 차림새가 적절하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평균 4.35)’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난 옷을 입지 않았을 때의 내 몸매가 마음에 든다(평균 2.36)’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을 줄이려고 매우 엄격한 식사 제한을 한 일이 있다(평균 2.54)’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 3.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관련 변수들의 차이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인식이 높거나 낮았을 때 내면화 또는 비동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식, 내면화 그리고 비동조점수를 다시 상위 40%와 하위 40%로 나누어 집단을 분류해 보았다.

<표 3>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서 그와 같은 기준을 수용하는 내면화도 높은 집단은 28명으로 나타났으며, 인식은 높더라도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내면화하지 않는 집단은 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배적인 사회인식에 의도적으로 반대하거나 독립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집단은 21명으로 나타

<표 2>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요 인 및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
<b>요인 I : 외모관리</b>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4.41	.80	.84	3.59	27.58
내가 항상 멋지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3.99	.89	.82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3.96	.82	.80		
나는 내 차림새가 적절하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4.35	.75	.73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3.69	.95	.65		
<b>요인 II : 체중관리</b>					
나는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다	3.12	1.23	.85	2.39	45.99
나는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걱정한다	2.92	2.92	.83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을 줄이려고 매우 엄격한 식사 제한을 한 일이 있다	2.54	1.39	.81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찌까봐 걱정이다	3.75	1.20	.78		
<b>요인 III : 외모평가</b>					
나는 성적 매력이 있다	2.66	.96	.77	2.24	63.25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다	2.82	.87	.76		
난 옷을 입지 않았을 때의 내 몸매가 마음에 든다	2.36	1.01	.73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2.75	.80	.67		

났으며, 인식에 따른 내면화와 비동조를 동시에 갖는 집단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요인 모두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다시 관련 변수별로 <표 4>에서 비교해 보았다. 사회문화적 태도의 집단별 하위척도와 BMI, 신체 및 외모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식과 내면화의 관계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인식과 내면화가 모두 높은 집단은 외모관리나 체중관리의 행동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인

식과 내면화가 모두 낮은 집단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외모평가의 감정적차원과 신체 및 외모 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 낮은 평가를 나타내어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비동조의 관계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알고 있으나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반대하거나 독립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비동조의 성향을 나타내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 신체이미지와 신체 및 외모 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두 집

<표 3>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인식, 비동조 점수에 의한 집단(n)

분류		내면화		비동조	
		저집단(33)	고집단(49)	저집단(20)	고집단(51)
인식	저집단(20)	7명	4명	2명	5명
	고집단(51)	8명	28명	2명	21명
비동조	저집단(13)	5명	6명		
	고집단(47)	8명	19명		

<표 4> 사회문화적 태도 집단에 따른 관련 변수들의 차이

집단유형	변수 분석	신체이미지			신체 만족도	외모 만족도
		행동적차원		감정적차원		
		외모관리	체중관리	외모평가		
인식과 내면화 모두 낮은 집단(n=7)	평균	3.17	2.61	2.48	2.29	3.00
	표준편차	.66	1.12	.54	.95	1.00
인식과 내면화 모두 높은 집단(n=28)	평균	3.96	3.65	3.10	2.32	3.14
	표준편차	.43	1.01	.76	1.12	.89
T-값		-3.92***	-2.40*	-2.03	-.08	-.37
인식과 비동조 모두 낮은 집단(n=7)	평균	3.67	3.15	3.33	2.50	3.00
	표준편차	.00	.17	.94	.71	1.41
인식과 비동조 모두 높은 집단(n=28)	평균	3.93	3.14	2.67	2.32	2.68
	표준편차	.33	1.47	.69	1.04	.99
T-값		-1.14	-.03	1.28	.24	.42
내면화와 비동조 모두 낮은 집단(n=7)	평균	3.83	1.75	2.75	3.00	3.00
	표준편차	.24	.46	.63	.82	.00
내면화와 비동조 모두 높은 집단(n=28)	평균	3.88	3.50	2.86	2.05	2.79
	표준편차	.49	1.07	.65	1.08	.79
T-값		-.19	-5.23***	-.31	1.65	.53

\*p<.05, \*\*p<.01, \*\*\*p<.001

단 모두 행동적차원의 외모관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신체 및 외모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와 비동조의 관계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상적 외모에 대한 수용과 반대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집단을 의미한다. 외모관리는 두 집단 모두 높은 편이며, 체중관리는 내면화와 비동조가 모두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0.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비동조하지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모평가는 두 집단 모두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신체 및 외모 만족도는 내면화와 비동조 모두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나 비동조할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신체이미지에 대한 하위척도와 BMI, 신체 및 외모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5>과 같다.

외모평가는 외모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79)을 나타내어 외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외모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는 인식과 높은 상관관계(.36)를 나타내었으며, 비동조는 내면화와 인식 모두 .18의 낮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승인하여 자신의 가치로 수용할수록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인식과 지배적인 사회인식에 의도적으로 반대하거나 독립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비동조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는 체중관리(.52) 및 외모관리(.40)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인식은 신체이미지의 하위차원인 외모관리, 체중관리, 외모평가 모두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외모관리는 상관계수 .42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내면화가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할수록, BMI지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6>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실제 평균 키는 162.91cm이고 몸무게는 51.95kg인데 반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는 167.70cm이고 몸무게는 49.49kg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키는 4.79cm 더 커야하고, 몸무게는 2.46kg를 더 빼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젓가슴둘레 평균치는 84.57cm이고 이상적인 젓가슴둘레 평균치는 86.06cm으로 나타나 1.49cm 더 커야한다고 인지하며, 실제 허리둘레 평균치는 68.99cm이고 이상적인 허리둘레 평균치는 62.85cm로 나타나 6.14cm 더 작아야한다고 인지하며, 실제 엉덩이둘레 평균치는 91.95cm이고

<표 5>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수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BMI	신체 만족도
	내면화	인식	비동조	행동적차원		감정적차원		
				외모관리	체중관리	외모평가		
인식	.36***							
비동조	.18*	.18*						
외모관리	.40***	.42***	.16					
체중관리	.52***	.21*	-.00	.18*				
외모평가	.19	.18*	-.15	.14	.13			
BMI	.07	-.08	-.13	-.18	.35***	.05		
신체만족도	-.30***	.01	-.05	-.01	-.30***	.29**	-.26**	
외모만족도	.01	.07	-.25**	.01	.11	.79***	.11	.24**

\*p<.05, \*\*p<.01, \*\*\*p<.001



이상적인 엉덩이둘레 평균치는 88.99cm로 나타나 2.96cm 더 작아야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적인 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키와 젖가슴둘레는 더 커야하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몸무게는 더 줄여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수용과 여학생의 외모가꾸기에 관하여 연구한 임경희<sup>26)</sup>는 응답자의 실제 체중은 53.0kg인 반면 이상적 몸무게는 49.0kg으로 제시해 4kg차이를 보였으며, 응답자의 실제 신장은 160.7cm인 반면 이상적 신장은 166.3cm으로 제시해 5.6cm차이를 보였다.

이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해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에 대한 조선명, 고애란의 연구<sup>27)</sup>에서와 같이 청소년 중기에 준하는 고등학교 시기에 외모와 관련하여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신체에 대한 개념이 최고를 이

루며, 신체에 대한 감정상태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대생보다는 여고생들의 신체 존중감 및 올바른 체형에 대한 가치관 형성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표 7>을 신체부위별로 살펴본 결과 몸무게와 둘레항목들의 만족에 따라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적 신체이미지에서 체중관리와 외모만족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문화적태도가 신체이미지 하위차원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태도가 신체이미지 하위차원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다. 사회문화적태도는 외모관리 및 행동관리의 행동적차원과 회귀계수 .46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고애란, 이수경<sup>28)</sup>, 조선명, 고애란<sup>29)</sup>의 연구결과와

**<표 6>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와의 차이검증**

항목	실제 사이즈	이상적 사이즈	T값
키	162.91	167.70	-12.70***
젖가슴둘레	84.57	86.06	-2.83**
허리둘레	68.99	62.85	7.01***
엉덩이둘레	91.95	88.99	3.71***
몸무게	51.95	49.49	4.53***

\*p<.05, \*\*p<.01, \*\*\*p<.001

**<표 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태도와 태도적 신체이미지, 신체만족도	사회문화적 태도			태도적 신체이미지		
	내면화	인식	비동조	외모관리	체중관리	외모평가
키	.60	1.45	2.19	1.09	1.69	2.03
몸무게	1.55	2.03	.66	1.96	3.76**	1.27
젖가슴둘레	1.21	.79	.05	1.35	.43	1.13
허리둘레	1.23	.65	2.89*	1.05	4.40**	.47
엉덩이둘레	.84	1.05	.91	1.41	2.51*	.86
다리길이	.83	1.29	.93	1.82	.22	.74

\*p<.05, \*\*p<.01, \*\*\*p<.001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체를 내면화하여 형성된 개인의 태도와 의식은 행동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외모에 대한 이미지 관련하여 행동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 모두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행동적 차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적 차원은 신체 및 외모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외모만족도는 회귀계수 .83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적 차원은 BMI에 영향을 미치며, BMI는 신체만족도(회귀계수 -.23)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 및 체중관리를 할수록 BMI가 높으며, 신체만족도는 낮아진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외모만족도와 회귀계수 .24로 나타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는 통계표의 standardized Coefficients의 Beta값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문화적태도는 신체이미지의 행동적차원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적차원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적태도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차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감정적차원은 신체 및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신체 및 외모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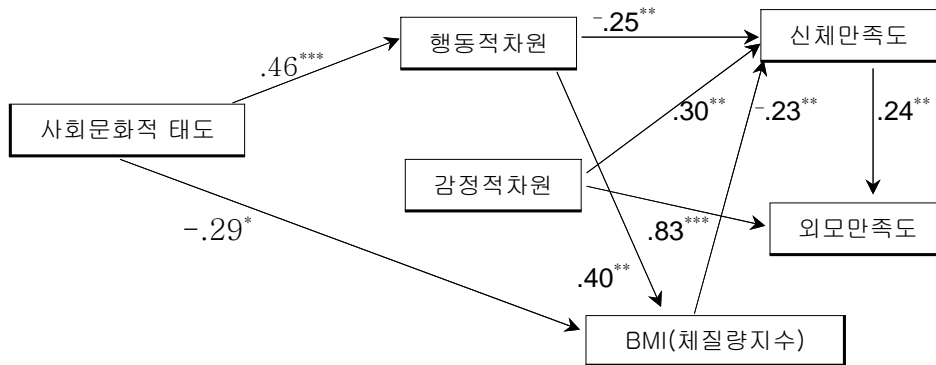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갖는가와 관련된다. 최근에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외모로 인간의 우월성을 가리고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이상적인 외모를 기준으로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므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행동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 실제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현대 사회 문화적 기준에 근거한 개인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문화적 추이 등에 영향을 받는 자신의 감정적·행동적 태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어 각각 ‘내면화’, ‘인식’, ‘비동조’라 명명하였다. 각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우리 문화에서 출세하기 원한다면 외모의 매력이 매우 중요하다’가 가장 높은 평균값(3.98)을 나타내었다.

2. 여대생의 신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어 각각 ‘외모관리’, ‘체중관리’, ‘외모평가’라 명명하였다. 각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가 가장 높은 평균값(4.41)을 나타내었다.

<그림 1> 사회문화적태도가 신체이미지 및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인과모형



\*p<.05, \*\*p<.01, \*\*\*p<.001

3.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인식, 비동조 점수에 의한 분류 및 집단 분석결과 인식과 내면화가 모두 높은 집단은 외모관리나 체중관리의 행동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외모평가의 감정적차원과 신체 및 외모 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 낮은 평가를 나타내어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문화적태도는 외모관리 및 행동관리의 행동적차원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외모에 대한 이미지 관련하여 행동적차원과 감정적차원 모두 신체 및 외모만족도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행동적차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신체이미지와 BMI, 신체 및 외모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모평가는 외모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내면화는 인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내면화가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할수록, BMI지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대생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키가 크고 전체적으로 날씬하며 가슴과 힙은 적당한 볼륨감을 유지하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이상적인 미의 사회적 기준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상당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적 외모에 대한 집착은서 현대 여대생들은 실제 신체비만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불만족을 함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정신과 육체를 해치지 않는 범위의 건전한 건강한 신체 및 외모관리, 그리고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자기가치 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부집단에 대한 t-검증이나 F-검증의 경우 결과에 대한 집단의 타당성을 위해 통계학적으로 통상적인 집단별 최소인원수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성별에 따른 신체 개념 및 신체관련 소비 연구 그리고 다양한 연령과 직업 등의 변수에 따른 내용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피부와 미용, 그리고 성형에 대한 인식과 관심

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재, 소비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신체관련 소비행동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홍금희(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비만도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pp.48-54
- 2) 홍금희(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p.348
- 3) Richins, M. L.(1991), Social comparison and the idealized images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pp.71-83
- 4) 홍금희, op.cit., p.349
- 5) 조선명 ·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pp.1227-1238
- 6) 김광경 · 이금실 · 정미실(2001), "다차원적 신체 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p.358
- 7) 김완석 · 김해진(2005), "여성의 신체이미지 지각이 신체관련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6(3), p.28
- 8) 조선명 · 고애란, op.cit., p.1229
- 9) 송경자 · 김재숙(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요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 pp.391-402
- 10) 황진숙 · 김윤희(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p.145
- 11) 서화숙 · 송정화(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p.332
- 12) 추귀태(2002),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

- 체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4), p.376
- 13) 조윤주 · 이정란(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p.77
- 14) 홍금희, op.cit., pp.352-353
- 15) Ibid., p.352
- 16) 김광경 · 이금실 · 정미실, op.cit., p.358
- 17) 추귀태, op.cit., pp.376-382
- 18) 황진숙 · 김윤희, op.cit., pp.143-155
- 19) 조선명 · 고애란, op.cit., p.1231
- 20) 서화숙 · 송정화, op.cit., pp.329-330
- 21) 홍금희, op.cit., pp.352-353
- 22) 조윤주 · 이정란, op.cit., p.265
- 23)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mer, S.(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pp.81-89
- 24) 홍금희, op.cit., pp.352-353
- 25) 조선명 · 고애란, op.cit., p.1231
- 26) 임경희(2005), “신체이미지수용과 여학생의 외모가꾸기”, *보건과 사회과학*, 제 17집, pp.107-132
- 27) 조선명 · 고애란, op.cit., pp.1227-1238
- 28) 고애란 · 이수경, “여고생의 신체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11), p.197
- 29) 조선명 · 고애란, op.cit., pp.1234-1235

---

접수일(2007년 12 월 3일)

수정일(1차 : 2008년 2월 20일, 2차 : 3월 12일)

게재확정일(2008년 3월 17일)